

아득한 '중세'의 꿈과 상상을 찾아서

중세에 다가서기 위한 역사읽기

최애리

불문학 박사 · 중세 문학 전공

구미(歐美)에서 '중세'가 일종의 문화적 유행으로 대두한 것은 70년대말 내지 80년대초의 일이었다. 중세를 주제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 소설들이 쏟아져나왔고, 각종 전시회와 음악회도 개최되었다. 무지몽매한 암흑기로 폄하되던 중세가 이처럼 대중문화 깊숙이 파고든 현상을 두고, 문화비평가들은 기계문명이 주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생태학적 신화라고도 하고, 역사의 가속화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서구사회의 뿌리찾기라고도 하였다. 한마디로, 중세는 동질성의 근원이자 창조적 상상을 가능케 하는 이질성의 시공간이라는 점에서 큰 호소력을 지녔던 것이다.

이질성의 시공간

이러한 대중문화적 현상보다 훨씬 먼저 시작되었고 또 단순한 유행과는 엄연히 구별돼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의 유행'에 적지 않게 기여한 것이 역사학에서의 중세 연구이다. 진척된 역사 연구의 성과 없이는 중세 암흑기라는 통념이 무산되고 중세 문명이 재평가되기 어려웠을 터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세는 장기지속의 역사를 주창하는 아날(Annales) 학파의 주요한 탐구영역이 되었고, 또 일상생활의 영역을 포함하는 전체사, 심성사(心性史)를 지향하는 아날학과 특유의 사관(史觀) 덕분에 역사는 전공자가 아닌 일반독자들에게도 접근하기 쉬운 것이 되었다.

최근 들어 우리 나라에서도 역사일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서양 중세사 관련 저서들이 앞다투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어찌 생각하면 왜 하필 서양 중세인가, 세계사의 견지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에 불과했던 중세 유럽의 역사에 이처럼 비중을 두는 것은 서양 학문의 맹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서양문화란 어느 정도 세계화된 문화이기도 하며, 그 문화의 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 중세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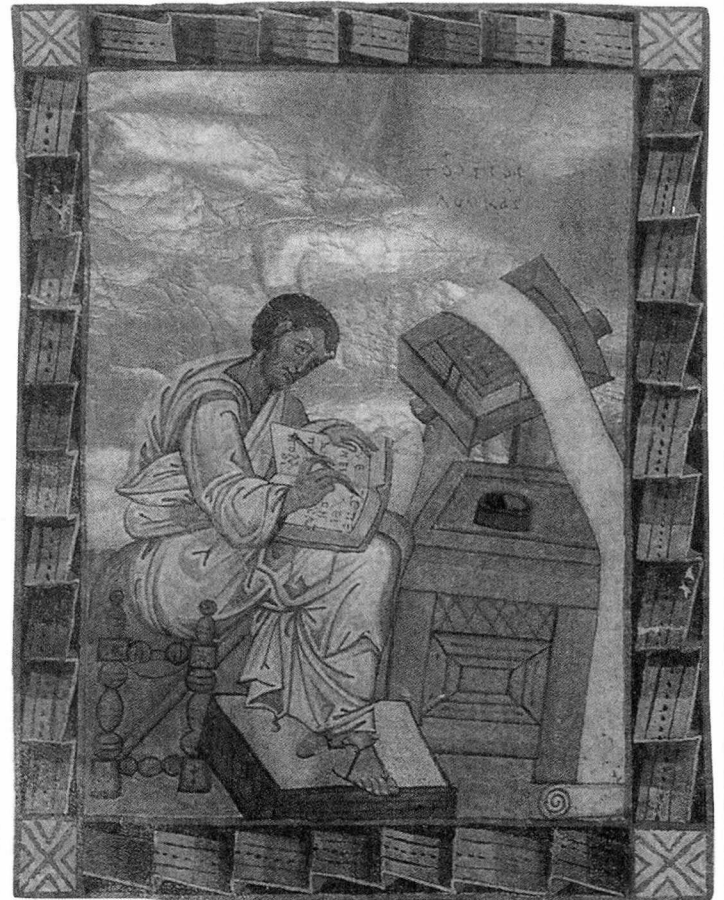
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 서양 중세사 관련 서들 중에, 우선 서양 중세문명의 개관에 속하는 책으로는, 자크 르 고프의 《서양 중세 문명》(1977, 축약본 1984; 문학과지성사 1992)과 조르주 뒤비·로베르 망드루 공저의 《프랑스 문명사》(1968; 까치 1995)의 중세편을 들 수 있다.

중세문명의 진면목 이해

《프랑스 문명사》의 중세편은 서기 천년 이후 중세 말까지의 프랑스 역사를 몇 단계로 나누어 사회구조·경제·종교·문화 등을 친절한 용어 설명과 구체적인 묘사를 곁들여 찬찬히 소개한 좋은 입문서이다. 이에 비해, 《서양 중세 문명》은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중세 천년에 걸친 유럽 전체의 역사를 물질세계와 정신세계·현실적인 것과 가상적인 것·이승과 저승 등을 망라하여 기술한 책으로, 아날학파의 전체사적인 경향을 잘 보여 준다.

서양 중세사 관련서

제 목	저 자	역 자	출판사
서양 중세 문명	자크 르 고프	유희수	문학과지성사
프랑스 문명사(중세편)	조르주 뒤비	김현일	까치
세 위계	"	성백용	문학과지성사
봉건 사회	마르크 블로크	한정숙	한길사
기사, 여성, 사제	조르주 뒤비	최애리	새물결(근간)
주교자성당들의 시대	"	"	동문선(근간)
예술과 사회	"	"	" (근간)
연옥의 탄생	자크 르 고프	최애리	문학과지성사
중세의 가을	요한 호이징가	최홍숙	"
16세기의 무신앙 문제	뤼시앵 페브르	김응중	"
중세의 지식인들	자크 르 고프	최애리	동문선(근간)



글쓰기가 생활의 중요한 임무였던 중세의 수도사.

좀더 본격적으로 중세사회를 이해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이제는 고전이 된 마르크 블로크의 《봉건 사회》(1939; 한길사 1986)와 조르주 뒤비의 《세 위계: 봉건제의 상상 세계》(1978; 문학과지성사 1997)를 읽어볼 만하다. 《봉건 사회》는 중세사회의 근본 구조를 이루는 봉건제의 형성과정 및 그 결합원리를 논구한 명저로, 이 책에서 받은 감명 덕분에 역사가가 되었다는 뒤비는 거기서 더 나아가 이 사회가 표방했던 이데올로기로서의 '세 위계' 이론이 구축되어가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또한, 이 봉건사회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관계나 위계 개념처럼 비교적 명백히 드러나는 측면들 외에 그러한 관계들의 얽힘이 좀더 미세하게 드러나는 일상생활의 영역도 들여다보아야 할 터이다.

뒤비의 《기사, 여성, 사제》(1981; 새물결, 근간)는 결혼이라는 문제를 통해 중세사회의 복잡다단한 이해 관계를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저서이다. 중세 귀족계급의 결혼

이야기들이 파란만장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독자는 교황과 왕의 갈등, 성직자와 영주의 갈등, 노소간의 갈등, 결혼한 성직자와 독신 성직자와 이단들의 갈등, 남녀간의 갈등 등으로 짜여진 중세사회의 생활상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중세 문명의 진면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낳은 예술이나 종교도 무시할 수 없다. 중세 예술에 관해서는 《주교 자성당들의 시대》, 《예술과 사회》 등 뒤비의 저서들이 조만간 국내에 소개될 예정이다.

종교에 관한 저서로는 르 고프의 《연옥의 탄생》(1981; 문학과지성사 1995)이 나와 있다. 한 사회의 저승 개념이란 그 사회의 실재하지 않는 그림자와도 같은 것이려니와, 고대의 여러가지 저승 개념들을 검토하고 연옥이라는 중간적 저승의 가능성을 타진한 뒤 그리스도교 서양 중세가 고유의 연옥 개념을 채택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해명한 이 책에서, 독자는 서양 중세사회가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을 왜 어떻게 지양하고 지상에 자리잡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게 된다.

서양 중세사를 꼭 공부하듯

'딱딱한' 책들을 차례로 읽을

필요는 없다. 종교·결혼, 지식인

계층이론처럼 자신에게 흥미로운

특정 주제를 통해 알아든지

중세 역사에 접근할 수 있다.

일반인에게나 역사학자에게 '중세'는

꿈과 상상의 공간이다. 차이가 있다면

역사학자의 꿈이 고증을 바탕으로

하는 꿈이라는 것뿐이다.

그런데, 중세 암흑기의 통념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할 때 제기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는 중세와 르네상스간의 관계이다. 세 위계의 신분 개념, 결혼 제도, 내세관 등 수많은 중세적 요소들이 르네상스 시대에도 존속하였고, 그래서 르 고프 같은 이는 고대 말기에서 산업혁명 이전까지를 '긴 중세'로 총괄하기도 한다.

중세와 르네상스의 관계

그렇다면 르네상스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견지에서 비교해가며 읽어볼 만한 책들이 요한 호이징가의 《중세의 가을》(1919; 문학과지성사 1988), 루시앵 페브르의 《16세기의 무신앙 문제》(1942; 문학과지성사 1997), 그리고 르 고프의 《중세의 지식인들》(1957; 동문선, 근간) 등이다.

출간된 지 한 세기 가까운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참신함을 잃지 않고 있는 《중세의 가을》은 중세 전성기의 가치관들이 과장된 양식(樣式) 속에 시들어가고 그러한 양식들이 기괴할 만큼 극단적으로 추구되는 가운데 절망과 냉소가 스며드는 15세기의 전반적 시대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호이징가도 수차 지적하고 있듯이 외양과 내실간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온갖 중세적 이상(理想)들은 그럴수록 더욱 열렬히 수호되었으니, 심성의 이러한 정체성은 《16세기의 무신앙 문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6세기의 '무신론자'로 통하는 라블레의 종교가 과연 무신론이었던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저자는 과연 16세기에 무신론이 가능했던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 당시의 철학·과학·비학(秘學) 등 정신적 영역을 답사한 끝에, 르네상스인들이 비록 변화의 징후들은 겪고 있을지언정 아직 그리스도교적인 정신의 구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중세로부터 르네상스로의 현저한 전환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한 가지는 《중세의 지식인들》에서도 발견된다. 지적 노동을 독립적인 생업으로 삼았던 중세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교권 및 세속권을 이용하고 이용당한 결과 지배계급의 도구요, 자유로운 탐구 정신을 상실한 현학자들이 되어갔던가를 보여주는 이 책에서, 독자는 고대-중세-르네상스로 면면히 이어지는 지적 유산의 계승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가 '재생'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고증된 '꿈의 역사'

하지만, 서양 중세사라고 해서 꼭 이렇게 공부하듯이 개관에서부터 시작하여 두껍고 '딱딱한' 책들을 차례로 읽어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든 결혼이든 아니면 지식인 계층 이론이든 자신에게 흥미로운 특정 주제들을 통해서도 알아든지 중세 역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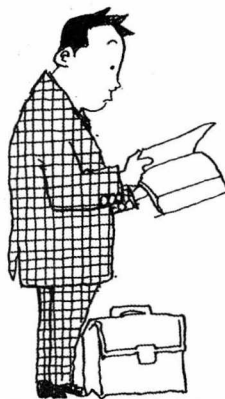
조르주 뒤비뉴는, 역사책의 첫번째 기능이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는 중세의 대중문화적 유행이 진지한 역사 연구에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하여 "잡다하게 뜯어맞춘 집단 기억과 역사가의 정리된 꿈"을 구별하면서도, 과거의 역사란 엄밀한 객관적 실체라기보다 다분히 역사가 자신의 주관적 상상에 의해 재현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었다.

일반인에게나 역사학자에게나 중세라는 아득한 과거는 꿈과 상상의 공간이며, 차이가 있다면 역사학자의 꿈이 고증(考證)을 바탕으로 하는 꿈이라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역사가 소설보다 덜 재미있으리라는 법도 없을 터이다. ❖

책과

오대리
박 시백.

그래요, 어려운 때일수록
절망적인 생각들은 털어버리고
자기계발에 힘을 쏟아야 할거예요



책 읽기는 사실
손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훌륭한
자기계발의 방법이지요.



알아요, 안다고요,
게다가 어려운 형편,
이해해요, 이해한다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

